

SeAn Magazine.

세안그를 정기발행 매거진 Vol.21

SEAN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매거진
2026년 봄 (Spring)

Contents

01 서울의 유산, 명동	Page 4
02 명동의 새로운 휴식, 퍼스트캐빈 서울 명동 호텔	Page 9
03 호텔, 할인 받고 예약하자	Page 14
04 세안그룹 소식	Page 15
05 문화 소식	Page 20



Feature :

Seoul Heritage

명동의 온도

100년 전의 숨결 위로 피어난 현대의 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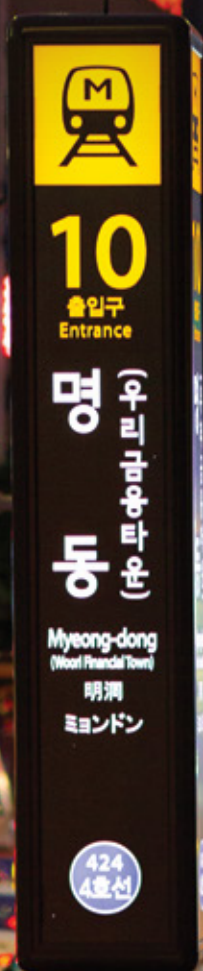
한 도시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땅이 품고 있는 시간의 층위에서 나옵니다.

서울의 심장 명동은 100년 전 모던보이들의 낭만과 전후 사교계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현대의 세련된 안식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박물관과 같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명동의 골목에서 과거의 숨결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그 시절 가장 화려했던 근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의 오늘,

여전히 가장 고풍스러운 자태를 자랑하는 한 건물에서 명동의 낭만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미쓰코시 백화점과 옥상 정원 : '날개'를 꿈꾸던 모던의 정점

명동 입구에서 마주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1930년대 조선에서 가장 화려했던 '미쓰코시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 공간을 넘어,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서구 문명의 찬란함과 나라 잃은 비극을 동시에 투영하던 모순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인 이상(李箱)은 그의 소설 《날개》에서 주인공이 이곳 옥상 정원에서 "날개야 다시 돌아라. 한 번만 더 날자꾸나"라고 외치는 장면을 통해 근대의 고독과 탈출 의지를 그려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의 고풍스러운 르네상스풍 외관을 감상하며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것은, 100년 전 모던보이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내려다보던 명동과 중첩되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한국은행 본관과 사거리 : 경성의 월스트리트, 부를 지켜낸 성채

신세계 백화점 앞 분수대 광장을 지나면 마주하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구 본관)은 웅장한 화강암 벽체와 돔이 특징인 르네상스 양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과거 '조선의 월스트리트'라 불렸던 이 사거리의 목직한 석조 건물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심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목직한 석조 건물 아래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나라의 자산인 금고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긴박한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건물의 웅장한 르네상스 미학이 당시 명동을 찾던 외교관들과 반도호텔 투숙객들에게 "서울에서 가장 유럽 같은 풍경"으로 사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호텔리어들은 투숙객들에게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돔 지붕을 '서울의 상징'이자 가장 아름다운 조망으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반도호텔과 럭셔리 기원 : 대한민국 '호캉스'의 원조

현재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호텔 서울이 자리한 부지는 대한민국 호텔 역사에서 전설로 남은 '반도호텔'이 있던 곳입니다.

1936년 건립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8층 건물이었던 이곳은, 모든 객실에 개인용 욕실과 화장실이 완비된 현대적 럭셔리 호텔의 시초였습니다.

반도 로비의 전설 :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8평의 공간

1950~60년대 반도호텔 로비는 '대한민국 정보의 심장부'였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인사들 사이에서는 "반도호텔 로비에서 귀동냥만 잘해도 국정관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곳의 소파는 권력가들과 재벌 총수들이 모여 국가의 굵직한 정책과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시키던 '제2의 집무실' 역할을 했습니다.

스타들의 런웨이와 동경의 향기

반도호텔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자신의 세련미를 뽐내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호텔 바(Bar)에서 위스키를 즐기던 풍경은 명동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절, 호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이국적인 빵 굽는 냄새는 서울 시민들에게 '미래의 풍요'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반도호텔은 명동이 대한민국 사교와 패션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명동성당의 붉은 벽돌 : 분주함 속에서 찾은 영혼의 안식

명동 언덕 끝에 위치한 명동성당은 이 도시의 소음을 잠재워줍니다. 1898년에 완공된 이래, 이곳은 지친 이들의 도피처이자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붉은 벽돌 벽 안에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김수환 추기경의 용기 있는 숨결이 깃들여 있습니다. 성당으로 피신한 학생들을 연행하려는 공권력 앞에서도 "나를 밟고 가시오"라며 약자들의 최후 보루가 되어주었던 그 결연함은, 명동성당이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식처가 된 이유를 말해줍니다.

성당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감동이 전해집니다. 당시 부족했던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 스무 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모양의 벽돌을 직접 굽고 깎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벽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130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온 것은, 어쩌면 이 성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연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봄 햇살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해 성당 내부를 비출 때 종교를 넘어선 위로가 됩니다. 번잡한 명동 거리에서 잠시 발을 떼어 이 적색 벽돌의 성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SeAn Hotel Group

: The New Luxury



FIRST CABIN INTERNATIONAL
SEOUL MYEONGDONG

세안호텔그룹

: '퍼스트캐빈' 대한민국 1호점을 선보이다

꽃이 만개하는 5월, 서울의 심장 명동에 새로운 휴식의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콤팩트 럭셔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퍼스트캐빈(First Cabin)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상륙합니다. 세안호텔그룹이 운영하는 '퍼스트캐빈 서울 명동'은 일본에서 이미 그 혁신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를 세안만의 섬세한 호스피탈리티로 재해석한 국내 1호점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좁은 공간을 넘어, 합리적인 가격대에서도 호텔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콤팩트 스테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퍼스트캐빈 명동의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도심의 소음에서 완벽히 차단된 나만의 아늑한 조종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일등석의 감동을 지상에서 : 클래스별 특징

퍼스트캐빈의 가장 큰 특징은 비행기 좌석 등급에서 착안한 객실 타입입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세분화된 세 가지 클래스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 First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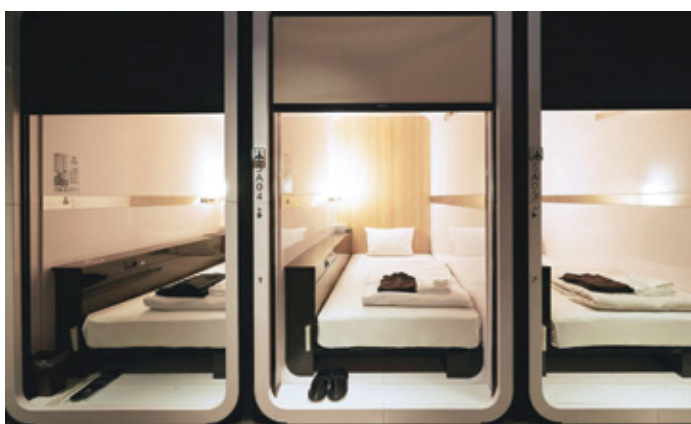


퍼스트 클래스 (First Class): 이름 그대로 최고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캡슐호텔의 한계를 넘어선 넓은 공간감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객실로, 침대 옆에 여유 공간이 있어 개인 짐을 편하게 두거나 간단한 업무를 보기에 적합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가장 경제적인 럭셔리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Business Class): 실용성과 품격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는 여행자에게 추천합니다. 침대 위주의 콤팩트한 구성이지만, 높은 천장고 덕분에 답답함 없이 아늑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비즈니스 트립이나 짧은 도심 여행자들에게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Economy Class):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퍼스트캐빈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타입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고 오직 '본질적인 휴식'에 집중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공간은 좁은 공간에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Business Class



• Economy Class



Cafeteria



세안의 안식, 타협하지 않는 안전의 원칙

세안호텔그룹은 일본의 운영 노하우를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고객의 안목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강화했습니다.



최상의 숙면을 위한 고집스러운 품질

퍼스트캐빈 명동은 제한된 공간의 한계를 넘은 '숙면의 과학'을 자부합니다. 수차례의 실사용 테스트를 거쳐 5성급 호텔 수준의 최고급 매트리스를 전 객실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콤팩트한 공간에서도 최상의 휴식을 보장하려는 세안만의 품질 기준입니다. 또한 감촉까지 고려해 엄선한 프리미엄 타월과 어메니티는 세안호텔그룹이 추구하는 '디테일한 호스피탈리티'를 증명합니다.



안전과 위생, 양보 없는 기본의 가치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과 '위생'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내장재는 엄격한 검수를 거친 불연 및 난연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안의 철학입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여 구조적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전문 방역 및 체계적인 클리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매일 엄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안호텔그룹의 전문 운영 시스템으로 진화한 퍼스트캐빈 명동은, 상식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는 프리미엄 콤팩트 호텔이 될 것입니다.



FIRST CABIN INTERNATIONAL

SEOUL MYEONGDONG

캡슐호텔의 미래, 그 중심에 서다

우리는 기존 캡슐호텔이 가진 저가형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똑똑하고 세련된 선택지가 되고자 합니다.

서울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명동에서,
100년 전 예술가들이 꿈꿨던 낭만과 현대의 기술이 만난
이 특별한 공간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정식 오픈과 함께 시작될 퍼스트캐빈 명동의 이야기는
세안호텔그룹이 그려나가는 콤팩트 호텔의 미래, 그 찬란한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호텔 고민 끝. 여행 시작.

세안호텔그룹

서울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 아트리움 서울 종로
강남 아르누보씨티 호텔
퍼스트캐빈 서울 명동 호텔 (5월 오픈예정)

인천

스파앳홈 사우나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북

전주 풍남가족호텔 (구. 풍남관광호텔)

제주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제주 디아일랜드블루 호텔
제주 그레이스 호텔

경남

거제 리인스테이 호텔
고성군 유스호스텔

선착순
100매

SPRING EVENT

봄같은
너에게

COUPON

901060
-78590000

₩10,000

쿠폰 사용방법

(1) 사용처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2) 사용기간 : ~ 2026년 7월 31일까지

(3) 사용가능호텔 :

강남아르누보시티호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아트리움서울종로, 거제리인스테이호텔,
고성군유스호스텔, 제주센트럴시티호텔, 제주디아일랜드블루호텔, 제주그레이스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전주 풍남가족호텔,
퍼스트캐빈서울명동

(4) 사용방법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쿠폰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www.seanhotelgroup.com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호텔 > 나의쿠폰 > 쿠폰등록하기

- 선착순 100매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 아이디당 해당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 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객실금액에서 할인되며, 추가금액 (옵션선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AN NEWS



세안호텔그룹, 2026 상반기 결산 : 안전과 합리성으로 여는 호텔의 미래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2분기 영업 활성화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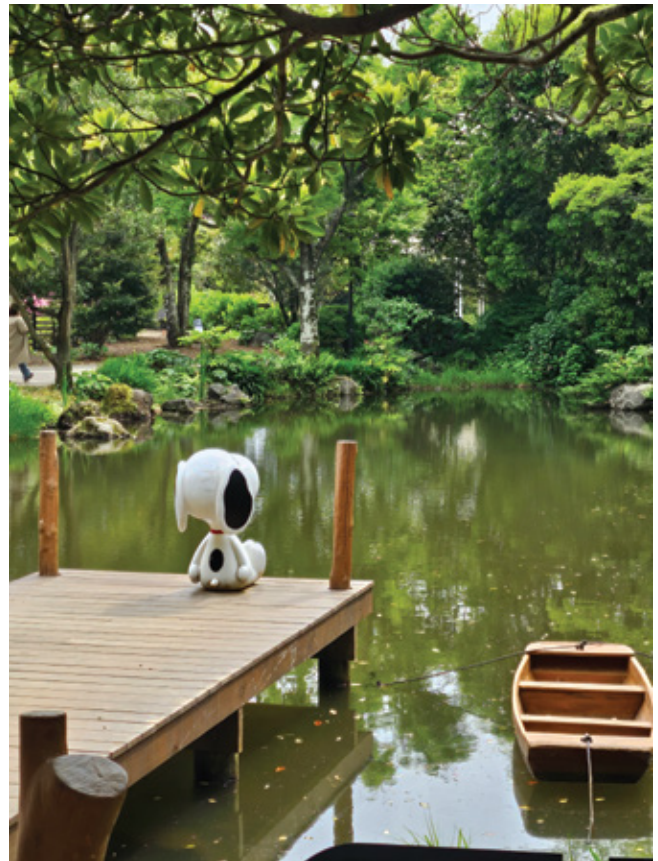
지난 3월 12일, 호텔아트리움서울종로 연회장에서 세안호텔그룹의 '2026년 상반기 성과 발표 및 2분기 영업 활성화 전략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매출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호텔 산업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한 실적 보고를 넘어,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직무 교육과 안전 관리 토론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본질적으로 높이려는 세안호텔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안호텔그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화려한 '꿈과 환상'이라는 추상적인 서비스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삶에 밀착된 '합리성'과 '편안함', 그리고 '실용성'에 집중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안식처이자,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일상적인 호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강남 아르누보 씨티 호텔, 전 객실 리뉴얼로 '중후한 안식'을 선사하다

강남의 중심에서 고품격 스테이를 제안하는 강남 아르누보 씨티 호텔이 지난 1년간의 정교한 준비 끝에 전 객실 리뉴얼을 마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 투숙객이 많은 호텔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 속에서도 호텔 특유의 품격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객실 내 벽면과 천정, 조명 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깔끔하면서도 중후한 인테리어 톤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장기 투숙 시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은하고 세련된 조명 설계는 고객들에게 깊은 휴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 베스트 제주 성산 호텔, 귀여움 한도 초과! 스누피가든 패키지

성산일출봉의 푸른 바다와 귀여운 스누피가 만났습니다. 세안호텔그룹이 제안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봄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스누피가든 패키지는 탁 트인 오션뷰 객실 1박과 함께, 제주 자연 속 피너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스누피가든' 2인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포근한 휴식, 더 베스트 제주 성산에서 잊지 못할 봄날의 기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 : 객실 1박 + 스누피가든 입장권(2매)

예약 : 공식 홈페이지



세안텍스 창립 25주년 기념, 초심으로 돌아간 ‘플로깅 데이’

매년 이웃 나눔의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주)세안텍스 사내 봉사단이 올해는 창립25주년을 기념하여 3월 5일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꾸겠다는 세안그룹의 기업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세안텍스의 초창기 사무실이 위치한 KT수서지점 빌딩에서 시작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직원들은 25년전의 열정과 초심을 되새기며 인근의 대모산 산책로 일대에서 플로깅(트랙킹과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정비하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맘을 흘렸습니다.

세안텍스는 지난 25년간 성장의 밑거름이 된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경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에는 초심찾기 행사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도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발자취 위에서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세안텍스의 다음 25년이, 우리 사회를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희망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안텍스, 글로벌 역량 강화의 여정, 일본 현장 교류 연수

"현장의 열정이 세안의 경쟁력입니다"

세안텍스 FM사업부문은 지난 3월, 탁월한 성과로 현장을 지켜온 우수 관리소장 4명을 선발하여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첨단 복합 빌딩 시설관리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단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쿄와 오사카의 주요 랜드마크를 방문했습니다.

도쿄의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TODA 빌딩과 아자부다이 힐즈, 그리고 오사카의 자연 친화적 건축물인 그랜드 그린 오사카 사우스 빌딩 등을 견학하며 선진화된 운영 방식과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최신 시설관리 트렌드를 분석하며 세안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수 소장으로 선발된 최성구 소장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끼며, 연수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현장에 적극 접목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박지훈 대표이사는 "소장님들의 성장이 곧 세안의 경쟁력"이며, "연수 성과를 각 현장에 확산시켜 조직 전체의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M 운영부문 총괄 김현대 상무 또한 "사내 호응이 높았던 만큼 더 많은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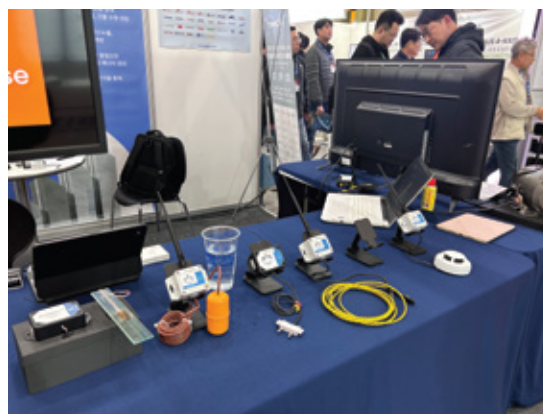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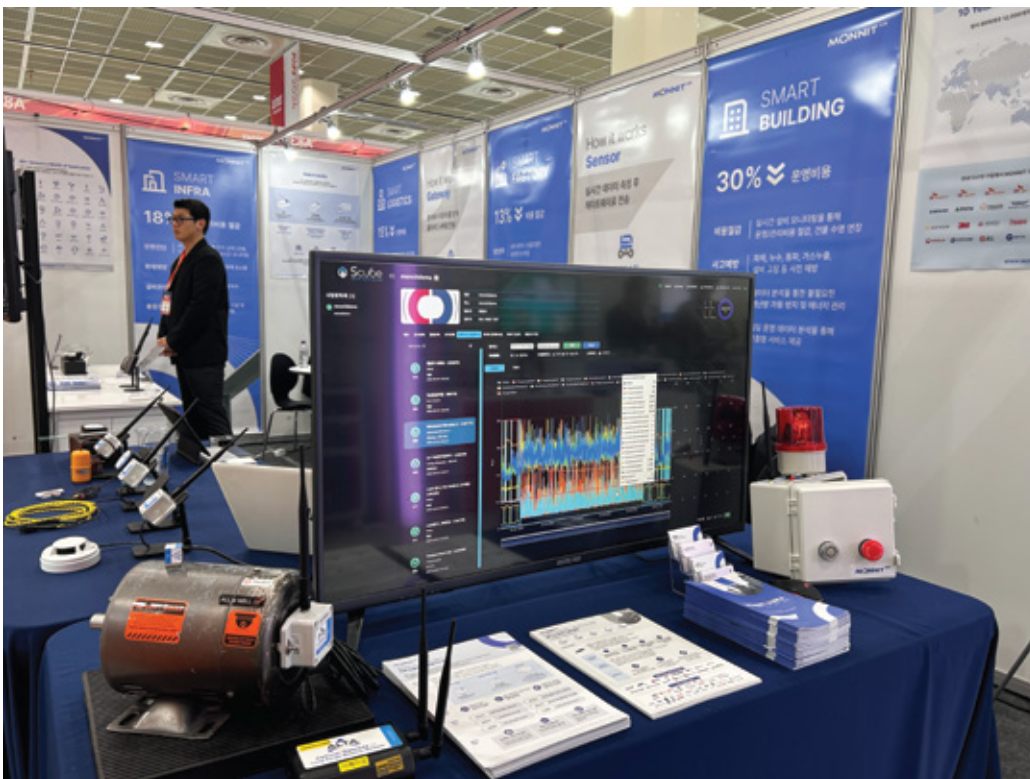
세안텍스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센서 기반의 스마트 FM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모넛코리아, AW 2026 참가... 무선 IoT 센서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눈길’

모넛코리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 제조 자동화 박람회인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6(AW 2026)'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모넛코리아는 산업 설비의 AX(AI 전환) 및 예지보전을 위한 혁신적인 무선 IoT 센서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이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시를 통해 소개된 시스템은 온도, 습도, 정밀 진동, 전류 등 다양한 설비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무선 IoT 기반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산업용 모터에 정밀 진동 센서를 적용한 실시간 시연이 진행되어, 진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비 상태를 상시 진단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보전 기술을 관람객들에게 직관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모넛코리아는 향후 무선 IoT 센서로 확보한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분석과 예지보전을 결합한 AX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그룹 등 주요 기업들과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PoC(실증 사업) 협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xhibition

쓰다, 이중섭

기간 : 2026.01.30.(금) ~ 2026.06.14.(일)

장소 : 아트조선프이스 (광화문역)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0 1층 아트조선프이스



붓끝으로 써 내려간 가장 뜨거운 기록, ‘쓰다, 이중섭’

아트조선프이스에서 마주한 이중섭은 과거 신화 속 화가가 아닌, 가족을 위해 그림 대금을 고민하고 절절한 안부를 띄우던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전시장 곳곳에 놓인 빛바랜 편지와 옛 신문 기사들은 그가 마주했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위해 전시회를 열고,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며 가족을 먹여 살리려 애쓰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네 가장들의 삶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 비극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그 고통조차 이겨내려 했던 그의 강한 생활력은 작품 너머의 인간 이중섭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헤리티지(Heritage, 유산)’란 무엇인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중섭은 훗날의 명성을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생의 찰나에 충실하며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후대의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한 개인의 진실한 삶이 시대의 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으로 치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헤리티지의 본질임을 깨닫게 합니다.

전시장 2층에서 마주한 제주 서귀포의 영상은 이 여정의 백미입니다. 분명 현재의 제주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속에는 이중섭이 여전히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묘한 착각이 듭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그의 인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무척이나 깊고 따뜻했습니다.



Book



날개

저자 : 이상

미쓰코시 옥상에서 꿈꾼 현대인의 비상, 이상의 『날개』

이번 호 [Seoul Heritage]의 무대인 옛 미쓰코시 백화점(신세계 본점)은 소설 『날개』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 를 말하며 방 안에 웅추려있던 주인공이 권태를 뚫고 나와 마지막 외침을 내뿜던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소설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의 무기력함은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초상이자, 타인에게 기생하며 주체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쓰코시 옥상에서 외치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라는 갈망은 비극적인 추락의 암시인 동시에, 바닥에서조차 내 의지로 도약하려는 가장 자주적인 도전으로 읽힙니다. 비극 속에서도 스스로 날개를 펴고자 했던 이상의 문장들을 통해, 박제된 일상을 깨우는 여러분만의 '날개'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Movie



파반느 (Pavane)

감독 : 이종필

비극의 파도 속에서 추는 춤, 영화 <파반느>

비극의 파도 속에서 추는 춤, 영화 <파반느>
영화 <파반느>는 잔잔한 흐름 속에 삶의 지독한 현실을 날카로운 대사들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똥이다", "사랑은 오해다" 라는 말들은 비현실적인 영화적 수사를 넘어, 누군가의 삶에선 한 번쯤 내뿜었을 현실적인 비명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체념하거나 당지 않을 환상만을 쫓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삶이 비극일지라도, 혹은 내가 누군가가 남긴 잔해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도 나만의 스텝으로 춤을 추고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그 숭고한 다짐. 영화 <파반느>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든 '우리'를 향한 가장 따뜻한 격려입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13일

발행처
주식회사 세안텍스

홈페이지
www.seantecs.co.kr

